

96년을 풍성하게 가꿔나갈 사람들

출판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출판사·출판인·작가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오는 사이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새해가 시작됐다. 또 한해를 시작하며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길 바라는 출판계의 바람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출판저널》은 신년 특집으로 주요 일간지 및 출판전문지의 출판 기자 11명의 추천을 받아 올해의 주목할 만한 출판사, 출판인 그리고 작가를 선정했다. 긴 불황으로 지친 출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이들을 만나본다. 추천하신 분은 다음과 같다.

조항민(동아일보) 이인우(한겨레신문) 박구재(경향신문) 여동은(한국일보) 손수호(국민일보) 정명진(중앙일보) 박정량(매일경제) 엄창현(국제신문) 권태룡(뿌리와 날개) 박철준(도서신문) 고두현(한국경제) (도착순)

도전의식으로 '새로운 길'을 뛰어간다

우리사회의 이론토대 쌓는 도서출판 '새길'

도서출판 새길의 고훈석 사장(38)은 “장사도 잘 못하고 책도 많이 못냈는데...”하며 96년에 주목할 만한 출판사로 선정된 사실을 겸손해한다.

87년 6월 창립, 이론투쟁이 치열했던 80년대 후반 운동권에서 소수의 진보적인 지식인 대중을 대상으로 이른바 'PD(민중민주주의)' 입장을 전개하고 대변하는 출판사로 '악명'을 떨쳤던 도서출판 새길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그 이름을 낮추고 방향 전환 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운동권이 담지했던 사상에 대한 회개가 고개를 들면서 진보 진영이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새길을 둘러싸고 모여 있던 우리만이라도 진보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운동으로 끌어들이던 후배들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인 책임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한국사회의 정신적 공백 메꿀 터

출판 밖에서 출판을 매개로 사회운동에 전념하던 고사장은 문화·교양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회로의 귀환'을 결의했고, 그렇게 다짐하고 출판계를 돌아보니 할 일이 또 한둘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고 자랑삼는

한국사회가 실제로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백이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93년부터 새길이 걷기 시작한 '새로운 길'은 이러한 공백을 출판을 통해 메꾸려는 의욕에 찬 길이었다.

젊은 정신과 의사 김정일씨의 심리치료 에세이 《나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는 93년 9월 발간 이후 25만부가 넘게 팔려나가 새길의 힘찬 출발에 기쁨을 부어 준 책이다.

이밖에 몇 권의 에세이와 《글로벌 시대의 메뉴팩처링》(리처드 E. 도치/홍성완), 《리 엔지니어링을 실현하는 15가지 정보혁명》(체릴 커리드/황홍선) 등의 경영서와 여성 교양서나 실용서, 《록, 젊음의 반란》(서동진)과 같은 대중문화비평서도 새길의 목록을 구성하고 있지만, 중심축은 무엇보다 '지혜가 드는 창'이라는 큰 틀로 묶이는 교양서와 '새길 신서' '고전 총서'라는 이름의 이론서 및 연구서 두 부분에 놓인다. “삶과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과 현대 과학문명을 이해하는 열쇠인 과학, 아름다움의 비밀을 찾는 미학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는 교양과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지혜의 창 시리즈'는 역사,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추되 정통 연구서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교양서들을 포함한다. 상식을 한꺼풀 벗겨 상식 밖의 진실을 들려주는 '상식 밖의...' 시리즈로 《상식밖의 세계사》(안효상 지음) 《상식밖의 과학사》(남경태) 등과 《철



고훈석 사장.

학과 굴뚝 청소부》(이진경) 《미학 오디세이》(진중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96년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역사의 강물을 건너다는 의미를 담은 '징검다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철학의 명저 20》(철학사상연구회) 《사회학의 명저 20》(김진균 외) 등 기왕에 출간된 명저 시리즈를 역사학, 경제학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새길 신서 및 고전 총서야말로 새길이 출판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집약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20세기의 원전들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고전총서' 기획의 의도입니다. 고전총서가 스테디한 것이라면 '새길 신서'는 우리 학계와 사회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생산되는 이론적, 학문적 성과들을 소개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도전만이 불황 극복의 지름길

우리 학계나 출판계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하게 될 '고전총서'의 경우 현재 20여 종이 기획, 번역 단계에 있으며 새길신서는 최근에 나온 《철학의 탈주》 《들뢰즈와 가타

리》 《들뢰즈와 푸코》에 이르기까지 47권이 출간됐다. “출판업에 종사하면서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장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해 20명에 이르던 직원을 9명으로 감원해야했던 사실을 가슴아파한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출판계에 '맨 파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력을 영입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출판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이를 위해 소규모 출판사는 전문서적 출판으로, 종합출판사는 시장의 흐름에 쉽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규합하고 세를 몰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사장의 요즘 생각이다.

“책으로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출판사만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판사들에게 도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고사장은 새길을 버티는 양 축의 목록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가면서 1종의 책이라도 더 내는 데 주력할 따름이라고 새해의 포부를 밝힌다.

—박남정 기자

세계 시장진출의 꿈 지닌 '출판 귀재'

김영사의 김영범 기획실장



김영범 기획실장.

“영업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편집에 대해 알아야 하고, 편집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영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올해의 주목할 만한 출판인으로 꼽힌 김

영사의 김영범 기획실장(38)은 출판에 관한 소신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인다. 그는 책을 기획·제작하여 판매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 과정들이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들이 아닌 하나의 단일한 공정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출판관은, 출판영업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기획실장으로 출판 전반을 관장하고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영업을 하다보니 편집을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케 되더군요. 어찌 너머로 배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관련 서적을 구입해 공부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배우게 되더군요.”

현재 김영사에서 한달에 한번 ‘기획의 날’을 두고 전 직원이 각자 기획 아이템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열리는 것도 ‘편집자만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회의를 비롯해서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의에도 가능하면 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책이 출간되면 그 책을 담당했던 직원은 직접 서점에 나가서 자신이 만든 책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서점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독자들의 반응도 접함으로써 현장감을 익힌다.

“이런 책은 처음이다”는 느낌이 드는 책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비슷한 책들이 이미 나와 있다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획단계부터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

한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83년 이래 연간베스트셀러 목록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출판사의 책들이 한번도 거르지 않고 올랐으며 ‘마케팅의 귀재’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비결이요? 글썄요. 경쟁력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한 출판사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과 책만드는 자세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늘 공백상태를 감수하며 인력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고충을 털어놓는다. “좋은 책은 안 팔린다는 등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출판사들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팔기 위한 상품이기에 이전에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매체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집안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덕에 책과 친숙하고 책에 대해 일종의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김영범씨는 자신이 출판업에 뛰어들어온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며 소탈하게 웃는다. 출판업에 종사한지 벌써 15년이 넘었다는 그는 언젠가는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획상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웅골찬 포부를 펴보인다. —한동림 기자

세상을 향해 마음 열어 신명오른 이야기꾼

소설가 김형경씨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살고 죽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말하고 침묵하는 것, ...요즈음은 자주 그 ‘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소설가 김형경씨(36)는 최근에 내놓은 소설집 후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그가 느끼는 그 ‘때’를 감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96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로 꼽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는 “이제 무언가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내 마음을 들킨 기분”이라고 한다.

‘이제’라고 말하지만 김형경씨는 실상 등단한 지 10년이 넘는 작가다. 83년 <문예중앙>에 시가, 85년 <문학사상>에 중편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그는 시집 《모든 절망은 다르다》, 소설집 《단종은 키가 작다》를 내기도 했다. 그가 문단의 떠돌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3년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로 제1회 국민일보 문학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이후 김형경씨는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직업작가’가 됐다.

“순전히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애당초 10년만 다니고 글을 쓴다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년째 되던 해에 미련없이 그만둘 수 있었지요” 제 몸에 든 신기를 억누르고 살던 사람이 공수를 받고 신명이 오른 듯 김형경씨는 지난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 봄에 그는 장편소설 《세월》을 세상에 내놓았다. 자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 소설은 어쩌면 국거리의 ‘제석본풀이’ 처럼 자신의 내력을 글로 풀어 대중신(大衆神)인 독자들에게 고품으로써 이렇듯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겠노라는 의지를 고하는 일종의 ‘제의(祭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겨울에 그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신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희망을 품고 일상으로 환원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한 소설집 《푸른 나무의 기억》(문학과지성사)을 또 펴냈다.

그러고도 이미 쓰기 시작했거나 구상중인 장편 서너편, 중·단편 몇 편이 더 있다. 그중 하나가 고래가 갖고 있는 신화적인 모티브를 축으로 거대한 공당이 들어선 이후 고래를 잡던 남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김형경씨.

낸 소설이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중문화와 거기에 깃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글로 옮길 작정이다. “소설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게 있어서 소설 형식의 문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들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전통적인 소설 형식이 지니는 미덕을 사

랑한다는 김형경씨는 소설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그가 늘 “이 세상이라는 게 무언가”하고 세상을 향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을 놔두고 작업실을 따로 얻어 출퇴근하는 이유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 대한 성실성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